



중 국

대륙의 장막을 헤치고 (6)



배 순 덕

전설적인 중국 미인의 대명사는 역시 양귀비와 서시(西施)다.

삼국지를 보면 춘추시대 말엽, 월나라의 왕(王) 구천이 오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오왕 부차에게 바친 것이 바로 세기의 미녀 서시(西施)인데, 북송의 소동파와 당대의 백낙천 등 쟁쟁한 시인들에 의해 그 서시에 비교되어져 왔고 지금도 그들 중국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만큼 경치가 빼어난 곳이 있다. 바로 '지상의 낙원'이라는 항주의 서호(西湖)이다.

상해에서 기차를 타고 네시간 남짓.

네시간이면 서울에서 대구를 가는 정도의 거리이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 같으면 다가섰다가는 물러서고 또 다가섰다가는 물러서고 하는 크고 작은 산들을 수 없이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항주에 도착할 때까지 산이라고는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었다.

가도가도 막막하고 너른 벌판과, 하늘과 맞닿아 있는 듯한 푸른 지평선과 꿈틀거리는 수로(水路), 사방 연속무늬 같이 끝없이 펼쳐진 벌판이 마치 변화없는 음표의 반복처럼 지루함만 더해가고, 가끔씩 보이는 농가에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후덥지근한 날씨와 퀴퀴한 냄새가 어우러진 비좁은 기차 창밖으로 내 나라에서 길들여진 습관 때문인지 어느새 산(山)을 찾고 있는 스스로를 의식할 때면 괴식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

주변이 어둑어둑해져서야 항주에 닿았다. 날이 어두워진 탓에 눈에 띄는 첫 인상은 기억에 없으나 어디선가 바람에 묻어오는 상큼한 물 냄새가 여행에 지친 가슴에 생기를 불어 넣는다.

망호(望湖)라는 이름이 의미하듯, 서호를 바라보며 우뚝 서 있는 망호빈관(望湖賓館)이라는 숙소에 여장을 풀고 주변을

▶ 서호(西湖)



산책하러 걸어 나가는데 따라 나선 중국인 동행이 들려주는 서호의 전설이 재미있다.

옛날 하늘나라 천하(天河)의 동쪽에는 옥룡(玉龍)이, 서쪽에는 금봉(金鳳)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이 두마리가 은하에서 흰 보석을 발견하였다. 둘은 합심하여 일 년동안을 열심히 그 보석을 갈고 닦았다. 덕분에 그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훌륭한 보석이 되었고 그 보석의 빛이 미치는 곳마다 산수가 수려해지고,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안겨 주었다.

천궁(天宮)의 서왕모(西王母)가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것이 보석 중의 보석임을 알아차린 그는 옥룡과 금봉의 사이를 갈라 놓고 보석을 빼앗아 갔다. 며칠 뒤 이 사실을 깨달은 옥룡과 금봉이 다시 합심하여 보석을 되돌려 받으려는 찰라, 서왕모가 보석을 쥔 손을 펴며 ‘앗’하는 사이에

구슬은 하계로 떨어져 반짝거리는 호수가 되었고, 그때 뒤따라온 옥룡과 금봉은 지금도 서호의 남쪽에 자리잡고서 옥룡산과 금봉산의 모습으로 서호를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

그것이 사실일리아 없겠지만 비안개 속에서 부스스 눈을 뜨는 새벽의 서호를 보면, 혹은 한 낮의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오후의 서호를 보면 어쩌면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하늘에는 극락이 있고 땅에는 소주(蘇州)와 항주(杭州)가 있다」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부터 익히 들었었다. 그러나 그동안에 보아왔던 중국의 도시들은 섬세하고 여린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대륙의 곳곳함과 투박함이 더 많이 느껴져 왔고 특히 물의 도시 소주



▶ 소주풍경

의 풍광은 그 명성에 비해 아쉬움이 참 많았다.

그런데 서호는, 단순히 아름답다는 말로써 표현해 내는 것 이상의 어떤 짜릿함과 몽클함 같은 것이 있었다. 물살을 가르며 서호를 달리는 배 난간에 기대어 손을 담근 채 호수 밑을 들여다 보면 펄떡펄떡 숨쉬는 잉어떼가 함께 달리다가 불쑥 물 위로 뛰어 오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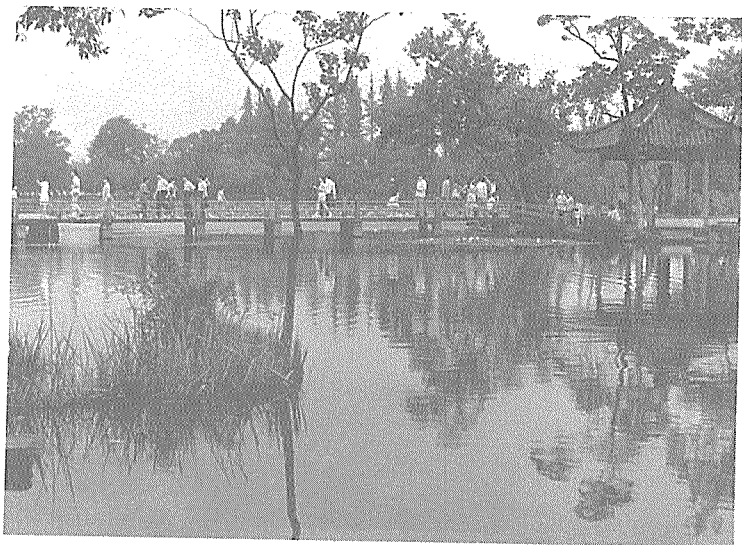
호수 속에는 큰 섬이 하나 있고 그 섬 안에 또 다른 호수와 정자가 있어 그 사이 사이를 다리가 연결해 주고 있다. 배를 내려 다리를 건너는데 수면 위에 가득한 수련과 연꽃이 우릴 반긴다. 한 눈에 볼 수 없을 만큼 넓게 펼쳐진 수면 위에서 꽃은 말 없이 웃고, 객(客)은 그 웃음에 매료되어 한동안 숨이 막힌다. 참으로 장관이다.

저녁 식탁에 잉어요리가 상에 올랐다.

조금 전 서호에서 노닐던 바로 그 잉어였을까? 팔뚝만큼 커다란 잉어를 머리는 그대로인 채 몸체에만 가로세로 칼집을 내어 양념을 바르고 구워 내왔다.

그 모양이 얼핏 보기에 먹음직스러웠던지 사씨가 길다란 대나무 젓가락으로 살코기를 한입 떼어 물자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잉어가 커다란 입을 벌리고 아가미까지 펄럭거리며 기겁을 했다. 그도 놀랐는지 야채잎으로 잉어의 머리를 덮고서는 슬며시 젓가락을 내려 놓는다.

쌍봉마을은 녹차로 유명한 곳이다. 가마솥 같이 생긴 널다란 솥을 걸어 놓고 한 남자가 차(茶) 만드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었다. 달궈진 솥에 차잎을 삼분의 일쯤 넣고 맨손으로 그것을 뒤집거나 솥 가장자리 쪽으로 문지르며 편편하게 말리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



▲ 서호(西湖) 섬 속에 있는 호수

책임자인 듯한 사람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다. 더러더러 턱이 빠진 찻잔에 녹차 잎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뒤 그것을 맛보게 하고 설명하고, 마지막엔 으레 그러하듯이 차를 판매하는 구내매점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

뜻밖에 그 곳에서 한국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이국 땅에서 만난 우리 사람들. 전혀 안면이 없는데도 우선은 반갑다. 우리보다 먼저 도착한 그들은 차를 사기에 여념이 없고 함께 간 일행 들도 가세하여 그 곳에 쌓여 있던 몇박스의 차가 금방 동이 났다.

잠시 가웃하던 판매원들은 이내 다른 박스를 들고 나와 진열대 위에 올려 놓는다. 분명 조금 전 것보다도 포장그림이 조악해 보이고 포장용기도 네모형에서 동그란형으로 전혀 다른 모양인데도 사람들은 차가 바닥날 거라는 조바심 때문인지 앞뒤 가리

지 않고 무조건 돈을 내고 사기에 바쁘다. 등급이 다른 것 같은데 왜 같은 돈을 받느냐고 곁에 있는 가이드에게 물었더니 웃음으로 얼버무린다. 가격이야 얼마이든 상관없이 사제기에 바쁜 사람들을, 녀을 잃고 바라보던 그도 대답하기가 민망했던 모양이다.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 뿐인데도 서로 사겠다고 아우성하는 것도 불성사납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들의 상술도 씩씩하고 하여 덩달아 기뻐했던 것이 오히려 부끄러워 그냥 나와 버렸다.

〈필자=화가·호는 창랑(滄浪)〉

